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영국 정부, 에너지효율 개선 위해 건물규제안 개정계획 발표

- 영국 정부는 신규 및 재건축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규제안 2000(Building Regulations 2000)을 개정하여, '10년 10월부터 개정안을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함.
 - 건물규제안 중 개정된 Part L,F,J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25% SGVDKRG '20년까지 매년 약 200만톤의 탄소를 저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Part L은 건물 자체 및 서비스의 에너지효율성에 대한 최저 기준을 높여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개조, 확장 공사 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고효율의 창문과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함.
 - Part F는 환기에 관한 것으로 주택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질수록 밀폐로 인한 실내 공기상태 악화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Part J는 고체연료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난방시스템의 보급 활성화에 초점을 둠.
- 이번 건물규제안에 대한 개정작업은 신규 주택과 기타 모든 건물에 대한 탄소 무배출 목표를 각각 '16년과 '19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임.

(Energy Efficiency News, 2010.3.15)

일본, LED 전구시장으로 빠른 전환

- 최근 일본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에서 소비 전력이 적고 수명이 긴 LED(발광 다이오드) 전구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기 각 사의 경쟁으로 가격조건이 맞고, 상품의 종류도 증

가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대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후원도 순풍이 되고 있음.

- 3월 17일에는 도시바가 120년의 역사를 갖는, 창업 사업의 하나였던 일반 백열전구의 생산을 기업 최초로 중단했음. 도시바와 선두를 다투는 파나소닉도 밝기를 기존 대비 1.7배로 높은 제품을 4월에 발매할 예정이며 생산 능력도 '09년 9월 대비 약 3배 확대할 방침임. 샤프도 전구의 종류를 13개로 확충하고 있음.
- LED전구는 100엔 정도에 살 수 있는 백열전구보다 초기투자 비용은 높으나 소비 전력이 백열전구의 1/8 정도이고 수명도 약 4만 시간으로 40배임. 장기간 사용할 경우는 LED전구가 저렴하며, 1일 10시간 사용하더라도 10년 이상은 교체할 필요가 없어 폭넓은 분야에서 수요가 기대되고 있음.
- 조사기관인 GfK(GfK-Nurnberg Gesellschaft fur Konsumforschung e.V)재판에 따르면, LED전구가 국내 전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수량 기준)은 '09년 1월 기준 0.01%이던 것이 올해 2월에는 약 10%로까지 급성장하고 있음.
- 온난화 대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백열전구 생산 중단 전망과 아울러 향후 LED 전구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讀賣新聞, 2010.3.19)

미국, 경기부양자금으로 에너지효율개선 가정에 \$1,500의 세제 혜택

-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경기부양자금을 기반으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경기부양자금에서 문과 창문 교체, 난방·환기·공조 설비

개선, 단열장비 설치 또는 온수기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주거부문에 세금공제를 통해, '10년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500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공제 받게 됨.

- 추 장관은 납세자들이 지난해 세금납부서를 제출하면 올 연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함. 납세자들이 이번 세금공제 혜택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정부는 신규 온라인 Tax Saving Tool을 도입함.

● 고효율제품을 설치한 주택소유자들은 장기적으로 에너지비용을 절약할수 있는데 태양전지판, 지열히트펌프, 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16년까지 비용 중 30%의 세금을 공제 받게 됨.

(DOE, 2010.3.26)

일본 지구온난화방지센터, 가정 에너지절약 진단 실시

● 일본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는 환경성의 지원 하에 이번 가을부터 약 1만 세대 가정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진단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동 센터의 진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사하고, 에너지 기기의 효율적인 이용방법 및 교체 등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조언해줄 예정임.

-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진전이 거의 없는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올해 돗토리현(縣)과 도쿠시마현(縣)에도 개설될 예정임.

- 올해 사업은 에너지절약 진단요원 양성에 역점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당 진단 건수는 약 200세대 정도로 구상하고 있음.

(日本工業新聞, 201.4.7)

일본, 에너지절약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 경제산업성과 도시바, 도쿄전력 등 287개 기업·단체는 4월 6일, 해외 인프라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민관협의회인 '스마트 커뮤니티 얼라이언스'를 정식 발족함.

- 협의회에서는 일본 기술이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스마

트그리드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배려형 인프라 시장 획득을 목표로 함.

- 일본 정부는 신성장 전략에서 신흥국의 인프라를 수주하기 위한 민관제휴를 중요시하고 있음. 나오시마 경제산업성 장관은 스마트그리드가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일본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인프라라고 지적하고 협회회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냄.

● 협의회는 국제 시장 획득을 위한 전략과 기술 구격을 만들고, 기술 개발 일정을 담은 로드맵 수립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참가기업 관계자는 4월 13일부터 4일간 미국 시찰을 실시하며 IBM과 GE 등 약 120개 회사가 참가하는 미국의 '그리드와이즈 얼라이언스'와 전략적 제휴 합의문서를 교환하고 수주 획득과 표준화 전략으로서 미·일 제휴를 강화한다는 구상임.

(産經新聞, 2010.4.7)

이집트, '11년까지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폐지

● 이집트는 '11년 말까지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임.

- 이집트 정부는 '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보류하였음.

- 동 정부는 7월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인상할 계획임.

- 시멘트, 철강, 비료 등 에너지 집약 산업도 점진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임.

● 이집트 정부는 '07/'08 회계연도에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위해 \$108.8억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06/'07 회계연도의 \$103.4억 원보다 5.2% 증가한 것임. \$108.8억 원 중 \$36.3억 원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 투입되었음.

- 이집트 재정부의 3월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7개월간 이집트의 예산 적자는 \$117.9억 원인데, 이는 전년동기 \$70.7억 원 대비 67% 증대된 것임.

(Reuters, 2010.4.12)